



## KDI FOCUS

2018년 8월 13일(통권 제92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김민호 연구위원 (044-550-4144)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임.

본 포커스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김민호 | KDI 연구위원

“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주었다. 최근 3년간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추고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다.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

가가치와 고용창출 역할에 더해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방식이 정보통신 기술 및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되면서 제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문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산업 고도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일부 기인하나, 근본적으로 생산성 정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를 분석하고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둔화 현상에 주목하여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 개선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성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산성 정체의 원인은 업력이 낮은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의 둔화 현상은 기술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 재설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역할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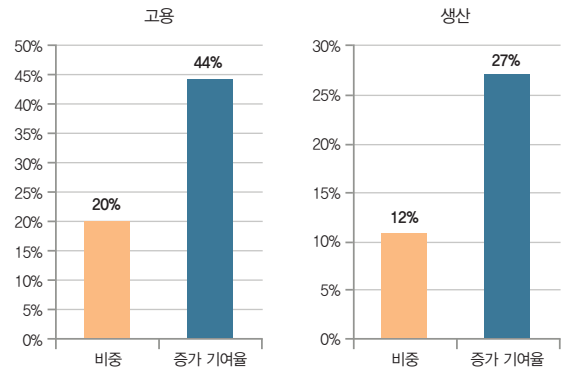
### 1.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sup>1)</sup>

신생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한다.

신생기업(업력 5년 이하<sup>2)</sup>)의 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은 매우 크다. 신생기업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며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신생기업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신생기업이 고용과 생산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

(그림 1) 제조업 고용과 생산에서의 신생기업(업력 5년 이하) 기여율



주: 1999~2013년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하인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도별 신규 창출되는 고용과 생산에서의 신생기업 기여율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9~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 역할을 하는지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해 분석하면 1999~2013년 사이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에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연간 평균 20%와 12%로 크지 않다. 그러나 신생기업은 매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44%와 생산액 증가의 27%에 기여하고 있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sup>3),4)</sup>(그림 1).

최근 일련의 실증연구<sup>5)</sup>에서 전체 산업의 성장에 고성장하는 신생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연도별 사업체 중 다음 연도까지 존속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력별로 증감률을 비교하면 업력이 낮을수록 사업체의 고용과 생산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이와 같은 지표들은 신생기업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실증한다.

1) 본 소절의 정량적인 분석내용은 김민호(2017, 근간 예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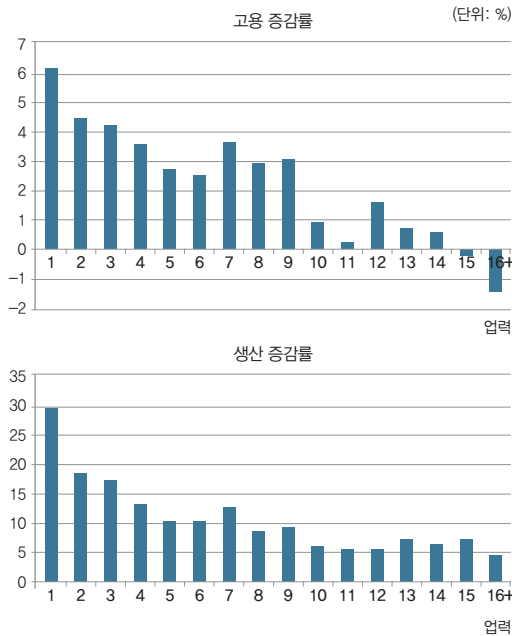
2) 신생기업을 정의할 때 보통 업력 3년에서 7년 사이로 기준을 둔다. OECD(2016)의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에서는 국가별 고성장 신생기업의 역할을 비교할 시에 5년을 신생기업의 기준으로 쓰고 있다.

3)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사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체의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 본고는 기업체가 아닌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기존 기업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해당 신규 사업체는 신생기업으로 포함된다. 사업체 수준의 분석은 사업장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업체 단위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최경수·김정호(2016)는 서비스업도 포함하고 있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1~14년 사이 2인 이상 규모의 회사법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절반 정도가 신생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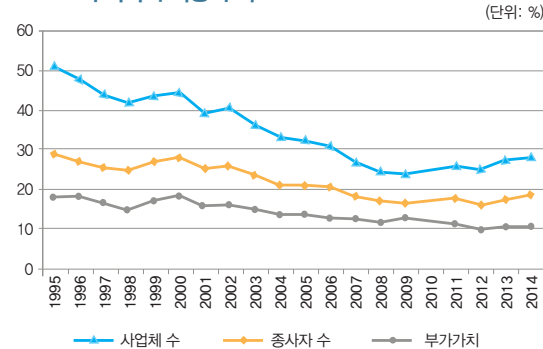
5) 예를 들어 Decker, Halliway, Jarmin, and Miranda(2014)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 존속사업체 업력별 고용 및 생산 증감률



주: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사업체 중 이전 연도에도 존재한 사업체의 업력 기준으로 연도별 증감률의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9~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 신생기업(업력 5년 이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 비중 추이



주: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하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5~2014)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Ⅲ. 생산성 둔화와 신생기업의 저성장

#### 1.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와 신생기업의 역할

우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을 측정하고 증가율 중 신생기업의 기여도를 살펴보자.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을 총최종수요의 변화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총지출의 변화를 제외한 수치로 정의하고<sup>6)</sup>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 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의 증가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총생산성 증가율이 정의된 방식에 따르면,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총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지난 약 20년간의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 추이와 이를 업력 5년 이하인 사업체들의 증가율(신생기업 기여도)과 업력 6년 이상인 사업체들의 증가율(기성기업 기여도)로 나눈 결과를 [그림 4]가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총생산성은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sup>7)</sup> 특히 최근 3년간 총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역동성의 저하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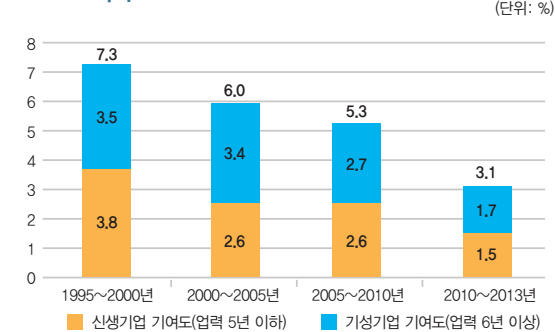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2. 신생기업 비중 감소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생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1995년 51%에서 2014년 28%로 크게 하락하였고,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 비중도 모두 하락하였다(그림 3).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비중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신생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현상과 대조된다. 신생기업의 비중 감소는 제조업 내 사업체들의 평균업력을 높여 제조업 사업체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한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생기업의 비중 감소가 제조업 성장의 정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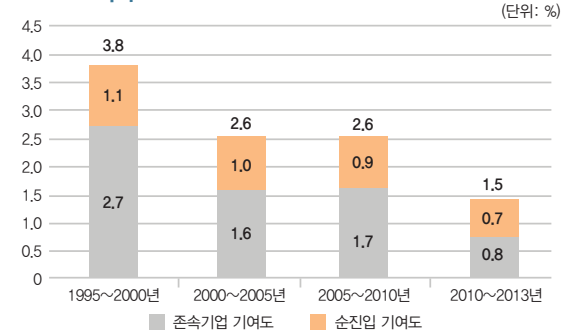
6) Petrin and Levinsohn(2012)에 따른 정의를 이용하였다.

(그림 4)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 분해: 신생기업과 기성기업 기여도



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수치의 합과 표시된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5~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5)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분해: 존속기업과 순진입 기여도



주: 신생 존속기업 기여도는 업력이 5년 이하인 사업체 중 이전 연도에도 존재한 사업체들의 연도별 생산성 증가율을 시기별로 평균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5~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신생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평균 13%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성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이다.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도  
한 요인이지만 진입한 신생기업의  
성장 정체는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를 하락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생기업은 1995~2013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 비중으로는 연평균 13%만을 차지하지만 해당 기간 제조업 연평균 총생산성 증가율 5.7% 중 약 절반인 2.8%의 기여도를 보였다. 동일 기간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47%인 중소기업(중사자 수 300인 미만)의 생산성 기여도는 2.1%로 나타나 비중에 비해 낮은 기여율(36%)을 보였다. 또한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총생산성 증가율에 비하여 변동이 적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경제침체기에도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신생기업이 생산과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성장에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이는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의 감소와도 이어질 수 있어 생산성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에 위험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성 증가분(순진입 기여도)과 진입 이후 성장으로 인한 기여도(존속기업 기여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림 5]에 나타내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순진입으로 인한 기여도가 감소한 요인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진입 이후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하여 역동성이 저하된 문제도 존재하지만 시장에 진입한 신생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첨단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역할 축소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과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정체의 문제가 어떠한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조업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기술 혹은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는지 진단해보자. OECD(2011)는 지식기반의 활동이 혁신, 기술발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와 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술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조업(High-technology), 고기술 제조업(Medium-high-technology), 중저기술 제조업(Medium-low-technology), 저기술

7) 추정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시점 이전부터 총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총생산성 증가율 둔화 요인을 대외수요 감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표 1〉 기술집약도별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신생기업 기여도)

(단위: %)

	총생산성 증가율	첨단기술 제조업	고기술 제조업	중저기술 제조업	저기술 제조업
1995~2013년	5.7 (2.8)	2.9 (1.0)	1.6 (0.8)	0.8 (0.6)	0.3 (0.4)
1995~2000년	7.3 (3.8)	3.4 (1.3)	2.2 (1.2)	1.1 (0.7)	0.7 (0.7)
2000~2005년	6.0 (2.6)	2.6 (1.1)	1.6 (0.6)	1.6 (0.5)	0.1 (0.3)
2005~2010년	5.3 (2.6)	3.2 (1.2)	1.3 (0.6)	0.4 (0.6)	0.4 (0.2)
2010~2013년	3.1 (1.5)	2.0 (0.2)	1.2 (0.6)	-0.2 (0.5)	0.1 (0.2)

주: ( ) 안의 수치는 해당 산업의 업력 5년 이하 신생기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5~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제조업(Low-technology)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sup>8)</sup> 〈표 1〉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집약도별 네 그룹에 속한 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D 지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 첨단기술 제조업과 고기술 제조업을 통틀어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지난 약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의 80%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기술 그룹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첨단기술 제조업과 중저기술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경기에 더 크게 반응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중저기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에는 철강과 조선업의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표 1〉의 괄호 안 수치는 기술집약도별 산업 내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낸다.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0~05년과 2005~10년 평균 2.6% 수준에서 2010~13년 사이 평균

1.5%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신생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진 현상은 신생기업의 역할이 발휘되어야 할 산업에서 오히려 역할이 축소되어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Ⅳ.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감소 요인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에서 신생기업의 기여도가 감소한 결과는 신생기업의 생산성 수준 자체가 떨어지거나 혹은 신생기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인 분석을 위해 사업체 업력별 평균 생산성과 사업체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

[그림 6]의 '평균 생산성'은 업력 11년 이상인 사업체의 평균 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신생기업의 상대적 평균 생산성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995~2004년의 경우 업력 11년 이상의 사업체에 비해 업력 0~2년과 업력 3~5년의 신생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2005~13년 기간에는 오히려 높아져 신생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업력 0~2년의 창업기 신생기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높아진 현상은 신생기업의 창업과 진입이 어려워져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만 진입하게 되는 선별효과가 작용한 결과를 반영한다.

최근 신생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높았음에도 총생산성 증가율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신생기업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전자,

전기, 자동차제조업 포함)은

지난 20년간 제조업 생산성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3년간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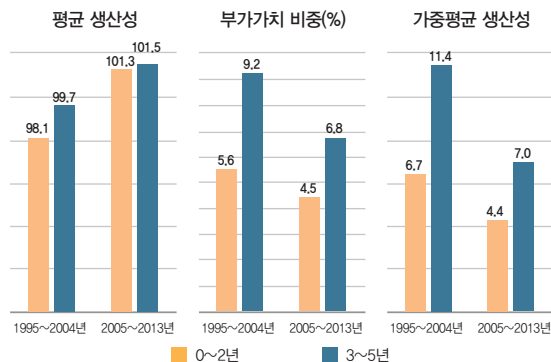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8)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기술 관련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술수준이 높거나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기술집약도에 따른 산업분류는 김민호(2017)의 〈표 4-3〉 참조.

9) 업력별 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종사자 수 기준으로 규모별 평균 생산성 차이를 보면, 규모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규모가 클수록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이 발견된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하락하였다(김민호, 2017).



(그림 6) 신생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 비중 변화



주: 1)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업력에 따라 0~2년(Startup: 창업기), 3~5년(Young: 초기 성장기)으로 분류함.  
 2) 생산성의 경우 업력 11년 이상인 사업체를 100으로 하여 다른 업력 그룹의 상대적인 생산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의 「공업·제조업조사」(1995~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신생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높았음에도 비중의 감소로 인해  
총생산성 증가를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하고, 기업을 직접  
선별·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림 6의 ‘부가가치 비중’). 이는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개별 사업체의 총산출을 가중치로 이용한 가중평균 생산성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의 ‘가중평균 생산성’). 신생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평균 생산성에 비해 가중평균 생산성은 업력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업력이 낮은 사업체들의 평균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은 반면, 가중평균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업력 3~5년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1995~2004년 평균 9.2%에서 2005~13년 6.8%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동 기간 가중평균 생산성이 11년 이상 사업체 대비 11.4에서 7로 하락하였다.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나빠진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에서 높은 사업체로 자원이 이동할 때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높은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에 제약이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성장시키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정책제언

첨단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에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신생기업의 진입과 성장은 미래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혁신적이고 고성장하는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업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추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sup>10)</sup> 단순화를 위해 현 지원사업의 출구전략(exit plan)을 마련하여 축소 통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혁신창업 지원이 효과적이라면 정부가 기업을 직접 선별·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상에서 2016년 기준 벤처기업 중 대다수(93%)가 정부기관이 선별한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이며 다수(73%)가 고도성장기, 성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벤처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sup>11)</sup> 혁신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이 일정 기간 이하이면서 벤처캐피털(모험자본) 투자를 받은 기업 혹은 R&D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연구개발

10) 창업지원사업 대다수가 창업 자체에 초점을 두고 다양하게 정의된 대상별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세대간융합 창업지원사업’은 대상을 청년 - 중장년 매칭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이 우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유럽연합의 경우 신생혁신기업을 영업비용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5% 이상이며 업력이 일정 기간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13)</sup>

셋째, 사업의 성과 평가가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관리와 개선, 사업 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평가 시에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지원기업 수 혹은 창업기업 수 자체가 성과로 인정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한 객관적 성과 평가가 전제될 때, 지원 결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 활로를 열어줄 신생기업들의 진입과 성장은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 또한 현재 혁신창업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당국자는 새로운 지원대상을 찾아 사업을 만드는 공급자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혁신창업자의 자세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지원)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혁신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이 낮은 벤처투자기업 혹은**

**연구개발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과 사업 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이미순(2016)은 벤처확인제도 운영의 성과를 분석, 점검하고 있으며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기원(2012)은 벤처확인 시점의 업력이 낮을수록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이 크며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성과분석에서 시장에서 선별된 벤처투자기업이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에 비해 기업공개 가능성과 매출 및 고용 성장률이 크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2) 정부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으나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의 제도로는 근본적인 개편이 될 수 없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 11. 2)에서 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 확대, 신기술 성장유형 산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인증제도 초기에 존재했던 신기술평가형 벤처기업은 평가의 일관성 부재, 선별능력 미흡, 신기술인증기업의 낮은 성과 문제 등으로 2006년 개편에서 폐지된 바 있다.

13) 문성배(2016)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유럽연합의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 15%를 완화하여 10% 또는 6% 이상인 기업을 신생혁신기업으로 정의하였을 때, 신생혁신기업이 타 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혁신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 11. 2.
- 김기완,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1-14, 한국개발연구원, 2011.
- 김민호, 『자원분배와 생산성: 한국 제조업의 역동성과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7-05, 한국개발연구원, 2017.
- 김민호,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재준 편,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7(근간 예정)
- 문성배, 「신생혁신기업의 혁신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2-03, 한국금융연구원, 2016.
- 이미순, 『벤처확인기업 성과분석 연구』, 기본연구 16-18, 중소기업연구원, 2016.
- 최경수·김정호,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연구보고서 2016-06, 한국개발연구원, 2016.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995~2014.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0~2017.
- Decker, Ryan, John Haltiwanger, Ron Jarmin, and Javier Miranda,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2014, pp.3~24.
- OECD, "ISIC REV.3 Technology Intensity Definition," OECD Publishing, Paris, 2011.
-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 Petrin, Amill and James Levinsohn, "Measuring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RAND Journal of Economics*, 43(4), 2012, pp.705~725.